

신앙간증

나래할 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어 잘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결혼 4년 차에 돌에 빌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그런데 쉽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 한동안은 친척들이 모여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물론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는 나갔지만 온전한 구원의 감동을 누리지 못할 때에 작은 아이가 많이 아프게 되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먼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셨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까지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소득의 십분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었다.

믿음이 자라면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집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십일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가족들도 건강하며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났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몸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너 뇌종양이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바로 옆드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나 어떡해요?” 소리를 질렀다.

그때 하나님이 “걱정마라.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다.

이 꿈을 꾸 후 몸이 더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삼성병원에서 뇌경색이 왔으니 약을 먹고 검사하면서 치료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거의 다 나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가정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늘 고백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

백운에 이사 와서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 백운교회로 인도하시고, 백운교회에서 신상군목사님의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할 일뿐이다. **<대월/한영애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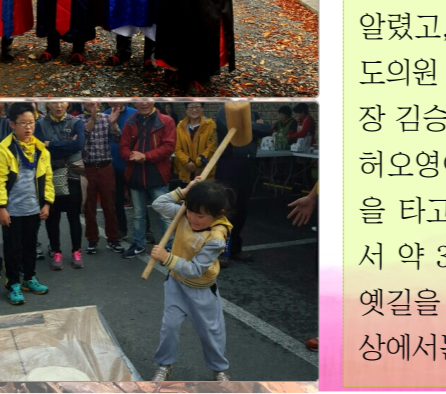
제3회 박달재 옛길걷기대회!



박달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교영)는 지난 24일 옛날 과거길을 재현한 '제3회 박달재옛길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농악대의 팽과리 소리로 장원금제의 즐거움을 알렸고, 백운면장 신영철, 도의원 윤홍창, 이장협의회장 김승현, 주민자치위원장 허오영이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는 행렬을 따라서 약 300명의 참가자들이 옛길을 올랐다. 박달재 정상에서는 백운사과를 알리는 사과막걸리와 도토리묵이 제공되었으며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다. 하산 후에는 점심식사와 떡메치기 체험(인절미체험), 나무공예체험, 라틴가수의 가을음악회가 진행되었다. 1등경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농악대의 팽과리 소리로 장원금제의 즐거움을 알렸고, 백운면장 신영철, 도의원 윤홍창, 이장협의회장 김승현, 주민자치위원장 허오영이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는 행렬을 따라서 약 300명의 참가자들이 옛길을 올랐다. 박달재 정상에서는 백운사과를 알리

는 사과막걸리와 도토리묵이 제공되었으며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다. 하산 후에는 점심식사와 떡메치기 체험(인절미체험), 나무공예체험, 라틴가수의 가을음악회가 진행되었다. 1등경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농악대의 팽과리 소리로 장원금제의 즐거움을 알렸고, 백운면장 신영철, 도의원 윤홍창, 이장협의회장 김승현, 주민자치위원장 허오영이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는 행렬을 따라서 약 300명의 참가자들이 옛길을 올랐다. 박달재 정상에서는 백운사과를 알리

<강푸른 선생>



속회탐방 아브라함속



몸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브라함속 속회예배가 이순희 권사가정에서 있다고 하여 참석하였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순희권사 가정의 들마루에 모여 김경자장로, 백영관장로, 이인택성도, 그리고 이순희권사의 어머니인 이태순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새벽마다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김경자속장은 매우 쉽게 성경말씀을 전달했고, 삶 속에서 베어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속도원들의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순희 권사는 속회를 드릴 때 마다 김밥을 준비했고, 김밥을 먹고 교제한 후 늘 그랬듯이 애런

지역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가는 전도에 나섰다. 김경자속장은 자비량으로 야쿠르트를 준비해 주었고, 다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 주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정에서는 백영관장로의 정성스런 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싫다고 두 손을 저으며 거부했다. 아마 어부지리 심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은 낙심하지 않고 매주 전도하는 것을 볼 때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속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여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한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속회, 화이팅! <정남미 사모>**

백운면 덕동리 "초록꿈체험센터" 준공



백운면 덕동리 32-10에 주소를 둔 초록꿈체험센터가 준공되었다. 초록꿈체험센터는 농촌 휴양 체험마을 지정 받고 초등, 중등 학생들이 여러가지 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성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체험지도사들과 함께 천연염색 체험, 나무공예 체험, 숲 체험, 피자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는 010-5487-6384(정재몽대표), 043)651-1233(사무실) **<조영숙 권사>**

